

테마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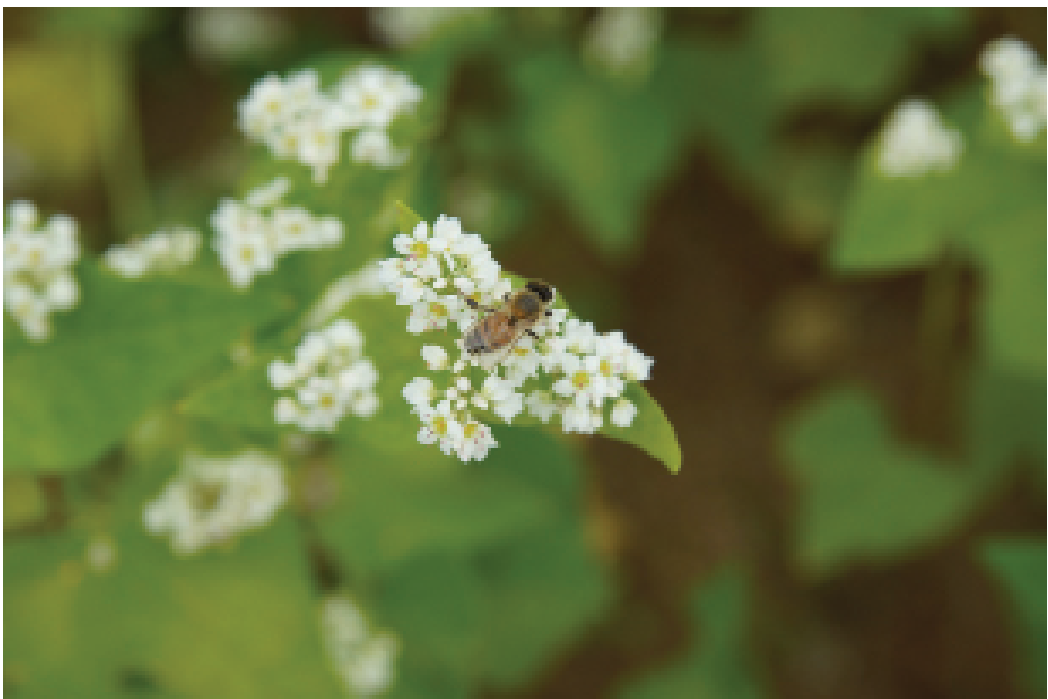


안명기
시인·수필가

메밀꽃 축제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쳐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 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중에서



우리 일행은 작은 동력선을 타고 강을 건너 단종 어소에 도착했다.

충절을 나타내는 소나무들은 모두 단종 어소를 향해 절을 하고 있다.

신기하기에 앞서, 슬픈 역사를 간직한 모습에 한 구석이 멍해온다.

일찍이 내 조국 내 강토가 아름답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처럼 아름다울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한 폭의 수를 놓은 듯한 산허리를 돌아 명경지수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검은 밤 하얗게 소복소복 내려앉은 눈꽃가루 같은 메밀밭 전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오금이 저려 발길마저 머물게 하는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형용할 수 있으랴.

메밀꽃 향기를 그옥이 안으며 구부러진 신작로를 따라가니, 꼬리에 꼬리를 물로 늘어선 차량행렬이 눈에 들어온다. 고지는 바로 저긴데, 도대체 점령한 방법이 요원하다. 친척집에 간다며 경찰관을 속이고(?)서야 비로소 봉평읍 내로 집입했다.

메밀꽃 축제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임에서 문학기행을 한두 번 간것도 아닌데, 이토록 가슴이 뻥 뚫린 기억에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우리는 또다시 감탄사를 연발하며 이효석 문학관으로 향했다. 매일같이 쏘 다리를 건너다니며 꿈을 키웠을 어린 가산을 생각하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야트막한 언덕을 오르자 이효석 문학관이 나온다. 이곳에서 이효석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다시한 번 되돌아보며 나 스스로를 성찰해본다. 서른여섯의 나이로 요절한 이효석. 천재작가들은 모두가 이렇게 일찍 세상과 영원한 별리를 한단 말인

가? 좋아하는 문학을 접했을 때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온다. 이미 와서 문학관을 둘러본 문우님들이 저 먼 발치에서 손짓한다.

우리는 길이 추억에 남을 기념사진을 찍고 수수알표 먹거리가 가득한 황 선생님 댁으로 향했다. 그러나 참새가 어찌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랴.

봉평 장터에서 메밀전과 막국수 그리고 동동주의 유흥이 발목을 잡는다. 주고받는 농주 잔에서는 붉은 놀이 타고 흐른다.

'아! 이 분위기 영원했으면 좋으련만…….'

일행은 흥겨움을 어깨에 걸치고 발길을 재촉한다. 그런데 황 선생님 댁을 향하는데 길눈이 흐릿흐릿하다. 이리저리 물어서 찾아간 곳이 이제 겨우 평창 시외버스터미널.

하는 수 없이 휴대전화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뱅글뱅글 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고 측은했던지 황 선생님이 직접 나오신단다. 이 무능함이여! 손바닥만한 내비게이션보다 못한 스스로를 한탄하며 황 선생님을 기다렸다.

빠앙빠앙—

소리를 내며 다가오신 황 선생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어둠을 가르며 달리는 자동차의 꿈무늬를 따라갔다.

이십여 분 동안 시원한 밤공기를 타고 달리니, 조금 전과는 새로운 세계가 가슴을 온통 뜨겁게 만드나. 아치형으로 아름답게 치장된 앞마당에 차를 세웠다. 먼 훗날의 전원생활을 막연히 떠올리며 넓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달빛 축제…….

미리 도착한 여러 문우님들의 손길이 분주히 움직

첩첩산중에 밤에는 피를 토하며 애간장을 끓을 듯한
 자규(子規)의 울음소리와 포악스럽게 들려오는
 포구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어린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고 있다. 넓은 솔뚜껍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알맞게 익은 고기는 늦게 오는 주인을 원망하는 듯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가득히 차려진 풍성한 먹거리. 이 모든 것은 시인이신 황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무공해 수수알표 음식이란다.

지난번에 비해 그리 많은 문우님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였고, 각자의 개성과 말투는 달랐으나 문학에 대한 열정만은 모두가 한마음이다. 보름 다음날이라 조금 늦게 붉게 타오르는 둥근달을 보며 우리는 흥에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하여!"를 서너 번 외치며 깊어가는 밤, 물소리, 풀벌레 소리에 온몸을 내맡기니 자연에 흠뻑 빠져 혼백이 날아갈 지경이다.

단종애사(哀史), 청령포

밤새 달과 별, 그리고 계곡에 흐르는 물과 함께해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글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서 좋았다.

끝없이 이어질 듯한 밤도 시간이 흐르면 여지없이 밝아지는 법…….

몇 날 며칠이고 함께하고 싶은 마을을 뒤로 접고, 황 선생님과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다음 행선지인

영월에 위치한 단종릉으로 향했다.

열두 폭의 병풍을 둘러놓은 듯한 산허리를 끼고 도니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긴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신선한 공기는 도회지를 떠나 산사에 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비류직하 태산 준령은 거대한 청룡과 황룡이 뒹잉킨듯이 장관을 이룬다. 사이사이에 납작하게 엎드린 손바닥만한 들녘은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빛으로 인하여 화려한 경관이 아름다움을 더한다.

개밭이라는 미명 하에 이처럼 수려한 산하가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렇게 삼십 여분을 달리자 비운의 왕 단종의 능이 우리를 맞이한다. 조금 전 까지 느꼈던 흥겨움도 잠시, 숙연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유배 가던 날, 정순왕후 송씨와 동묘 앞 영도교에서 생이별을 하고 천 리 유배 길을 올랐던 열여섯의 어린 단종을 생각하니 가슴에 비수와 꽃히는 듯하다.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된 뒤 죽임을 당한 사육신—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응부, 유성원.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한 것에 항의하고 벼슬을

버리고 살아서 저항한 생육신—김시습, 원호, 이명전, 조여, 성담수, 남효온.

숙부인 금성대군 역시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사약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결국 유배 길에 오르게 된다.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였고, 뒤는 칼보다 더 날카로워 나는 새조차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 하니(飛鳥不入), 천혜의 유배지라 할 수 있다. 첩첩산중에 밤에는 피를 토하며 애간장을 끓을 듯한 자규(子規)의 울음소리와 포악스럽게 들려오는 포구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어린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층암절벽인 노산대에 올라 한양 땅 서쪽을 바라보며, 두고 온 정순왕후가 그리워 가슴을 쥐어짜며 몸부림을 치진 않았을까?

정순왕후 또한 지아비를 그리며 매일 아침 동쪽 영월을 향해 울부짖었고, '정업원'이라는 움막 안에서 82세로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과 권자 앞에서는 진정 혈육의 정(情)도 없단 말인가? 입안이 쓰고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혀온다.

우리 일행은 작은 동력선을 타고 강을 건너 단종 어소에 도착했다. 충절을 나타내는 소나무들은 모두 단종 어소를 향해 절을 하고 있다. 신기하기에 앞서, 슬픈 역사를 간직한 모습에 한구석이 멎어온다.

관음송(觀音松).

단종의 억울하고 아픈 모습을 지켜보았고, 울부짖음을 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했다.

아! 그 처절하고도 애절한 슬픈 현장을 지켜본 백척 소나무 관음송.

17세의 어린 나이에 혈육인 숙부에게 사약을 받아 꽃다운 생을 마감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았을 테지…….

엄흥도(嚴興道)를 기리는 정려각.

단종의 시신은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합수머리에 버려졌다.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후환이 두려워 누구 한 사람 거두지 않는다. 그러나 단종의 시신은 바로 떠내려가지 않고 며칠간을 뱅글뱅글 돌았다.

그래도 충신은 있는 법.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해도 달게 받겠다.'

영월의 호장이었던 엄흥도가 몰래 시신을 거두어 '동을지산'에 묻었다. 그곳이 바로 단종이 묻혀 있는 지금의 장릉이다. 그리고는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단종이 죽자 여섯 명의 궁녀들은 차례로 동강(東江)에 몸을 던져 순절하니, 후세 사람들은 이 절벽을 낙화암이라 불렀고, '민충사'라는 사당을 세워 이들의 충절을 기리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슬픈 역사가 물레바퀴처럼 도는 현실 앞에, 가슴속에서 응어리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슬프고도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우리는 또 다른 목적지인 하늘을 이불삼고 산천을 벗 삼아 해학과 재치, 그리고 풍류로 한 세상을 바람처럼 살다 간 조선 후기 천재 시인(詩仙), 난고(蘭皐) 김삿갓 문학관을 향해 무거운 발거음을 옮긴다.